

< 행복 >

○ 책 소개

○ 저자 : 법륜(법명, 법호 : 지광, 속명 : 최석호), 2016. 1. 1판 1쇄, 2018. 5. 1판21쇄발행, 나무의마음 출판

○ 주요 경력 :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멘토로 알려진 법륜스님은, 1953. 4. 울산광역시 출생, 경주에서 고교 시절 불교학생회를 조직해 활동하다 17세인 1969. 12. 경주 분황사에서 불심 도문스님과 선문답을 계기로 “과학자를 꿈꾸던 소년 최석호”에서 출가입문하여 사미계를 받고(법명 법륜) 도문스님이 세상에 나가 복덕을 쌓으라는 권유로 1971년부터 20년간 사회생활을 하였는데 당시 민주화운동으로 나라가 들썩이던 때라 잠시 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칠 때 운동권의 자금책으로 오인 받아 경찰에 두 번 체포되면서 처음엔 “처참하게 맞고 물고문도 당해 몸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고문을 당하고”, 두 번째에는 실제로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다가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다고 함(2012. 5. 28.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 인터뷰)

그 뒤 1988년 불교수행공동체 정토회를 설립하여 수행지도와 사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재는 통일 연구교육기관 평화재단, 국제기아문맹퇴치 민간기구 한국ST(Join Together Society), 국제 평화인권남민지원센터 좋은 벗들, 환경단체 에코붓다의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정토회의 지도법사로 활동 중이고, 2000년대 이후 대중들의 고민을 듣고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즉문즉설’ 강연으로 멘토로서 유명해졌고, 스님의 저서 《스님의 주례사》, 《엄마수업》, 《인생수업》, 《방황해도괜찮아》, 《지금여기, 깨어있기》, 《야단법석》, 《행복》 등이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다양한 구호활동으로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평화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상(평화와 국제이해 부분)을 수상하기도 하였음.

○ 좋은 글귀

-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법구경
- 우리는 평생 행복의 조건만 바뀌며 살다가 제대로 행복의 맛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부와 명예와 가족과 친구는 고통의 원인도 아니고 행복의 조건도 아닙니다. 현재의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삶이 자유롭고 행복해 집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불행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마세요.
-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 바라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조건이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해 보지 못한 사이 시간은 쏠살같이 흘러갑니다.
-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괴로운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지, 이런 생각이 없다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에요.
- 화가 일어나는 그 근본을 살펴 알게 되면 아예 화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면 화낼 일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요, 화를 돋우는 건 아이도, 배우자도, 직장 상사도 아니고 바로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 의견을 내 취향을 내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화가 나고 괴롭고 슬픈 것이지요. 우리는 자기 감정을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감정이란 습관에 의해 형성된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국 습관이 나를 끌고 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습관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순간순간 화가 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연히 알기는 쉽지 않지만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려는 노력만으로도 어느덧 화를 덜 내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 후회는 지나간 실수에 매달리는 것. 후회한다는 건 실수를 저지른 자기를 미워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후회는 자기에 대한 또 다른 학대입니다. 남을 용서 못하는 게 미움이라면 자기를 용서 못하는 게 후회입니다. 후회는 반성이 아닙니다. 후회는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제라도 그때 그런 수준이 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존 러스킨의 생명의 경제학 -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Unto This Last) - >

○ 책 소개

- 저자 : 존 러스킨 / 광계일 옮김
- 출판사 : 아인북스, 2018. 10. 출판 (240쪽)

○ 작가 소개 (존 러스킨, 1819~1900)

- 존 러스킨은 영국이 낳은 19세기 위대한 사회사상가, 예술 비평가. 런던의 부유한 포도주 상인 집안에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 화려한 예술비평가의 길과 험난한 사회사상가의 길을 차례로 걸음. 예술 평단의 1인자로 명성을 떨치던 중, 어두운 사회경제적 모순을 목도하고 불혹의 나이에 사회사상가로 전향, 정통과 경제학을 공격하고 인도주의적 경제학을 주장. 묘비에 'Unto This Last'라는 문구가 새겨짐

○ 책 소개

- 콘힐 매거진(The Cornhill Magazine)에 연재된 4편의 정치경제학 논문들을 엮은 책으로, 마태복음 제20장 14절을 인용하여 제목을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고 정함.

※ 1편 명예의 근원(the roots of honour), 2편 부의 광맥(the veins of wealth), 3편 지상의 통치자들이여(qui judicatis terram), 4편 가치에 따라서(ad valorem)

- 간디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꾼 책 : 간디는 34세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업한 1903년에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Unto This Last)'를 처음으로 접한다. 간디는 요하네스버그에서 더반까지 24시간 기차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역까지 나와 전송해준 폴락(남아프리카 어느 채식식당에서 알게 된 유럽인)이 틀림없이 좋아할 것이라며 책을 하나 선물했는데, 그 책이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이다.

- 간디는 자서전(간디 자서전, 함석헌譯, 한길사)에 이렇게 적고 있다.

“그 책은 한번 읽기 시작하자 놓을 수가 없었다. 기차는 밤에 도착했다. 나는 그 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생활을 그 책의 이상에 따라 변경하기로 결심했다. 러스킨의 책을 읽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내가 교육을 받고 있을 시절에는 교과서 외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읽지 않았고, 내가 분주한 활동을 시작한 후는 독서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한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것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리어 제한된 독서 때문에 읽는 것만은 충분히 소화할 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책 중에서 내 생애에 즉각적이고도 실천적인 변화를 가져다준 것이 바로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다.” “나는 나의 가장 깊은 확신 중의 어떤 것들이 러스킨의 이 위대한 책 속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사로잡았고 내 생애를 변화시켰을 것이다”.

“이 책의 교훈을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첫째, 개인의 선(善)은 전체의 선(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둘째, 변호사의 직업은 이발사의 직업과 꼭 같은 가치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꼭 같이 제 직업으로 제 살아갈 것을 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셋째, 노동

자의 생활, 즉 받을 가는 자의 생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자의 생활이 보람 있는 생활이라는 것.

○ 주요 내용 및 좋은 글귀(1편 '명예의 근원' 中)

- 난 단지 뼈 없는 인간을 가정한 체조학에 관심이 없듯이 영혼 없는 인간을 가정한 경제학에 관심이 없다.

- 노동 파업 등 다수의 생계와 다량의 부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중대한 시점에서 경제학자들은 오리무중이었고, 그들은 실타래처럼 엉킨 사안을 두고 대립 중인 노사 양자를 설득하거나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 어떤 정치사회학도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결정하는 변수는 한없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동 양태를 '득실의 균형'이라는 해석 논리로 귀납시키는 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인간을 향한 조물주의 의도는 '득실의 균형'이 아니라 '정의의 균형'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의라는 단어를 한 사람이 타인을 향해 품는 '애정'을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에게 최대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정의와 애정이다. 사람이라는 동력기관은 특별하여 보수나 외압이나 다른 어떤 종류의 연료의 힘으로 최대의 노동량을 산출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오직 이 기관의 고유연료인 '애정'이 기관에 공급되어 폭발할 때, 그 동력인 의지와 정신을 최고의 상태로 고취시켜 최대의 노동량을 산출하도록 만들어졌다.

- 우리가 법관을 존경하는 이유는 '자기희생'의 직업정신에 그 궁극적인 바탕을 두고 있다. 어떤 대가가 따라오더라도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존경하게 만든다. 굵직한 판결 사례마다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닌 정의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대중의 암묵적 확신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대중의 존경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반해 상인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판을 갖는 사회현상의 근원이 뿌리박고 있는 심층은 '상인은 어느 경우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사회적 인식이다. 상인이 최대이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과 동시에 똑같은 권리를 사회와 소비자에게도 부여됨에도, 대중은 상인이 자신의 의무와 권리에 따라 장사하는 것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비난하며 그들의 인식 속에 하층계급에 속한 속물들이라는 영원한 낙인을 찍고 있다. 결국에는 대중들도 상인에 대한 이중 잣대를 거둬들여야 한다.

- 상인에 대한 고귀한 사회적 인식이 생기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국가와 사회를 위한 상인의 참된 직업 소명이 무엇인지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 국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5대 전문 직종이 있다. 군인의 직분은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고, 목회자는 국민을 교화하는 것이며,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고, 법관은 국가의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며, 상인은 국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공통된 본분은 '유사시'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유사시'란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군인은 전투 시에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고, 의사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자신의 진료소를 지키고 있어야 하며, 목

회자는 설교에서 거짓을 증거하지 말아야 하고, 법관은 판결에 불의를 좌시하지 말아야 하며, 상인은 국민에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상인은 그가 판매하는 물품의 품질 기준과 그것을 제조하거나 확보하는 경로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표준정품을 생산하거나 확보하여 수요가 가장 큰 곳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심혈을 쏟아야 한다.

- 함장이란 난파된 군함을 마지막으로 떠나는 사람이어야 하고, 군함에 식량이 바닥났을 경우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빵 한 조각마저 부하들과 나눠먹어야 할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와 책임을 지녀야 한다. 모든 경제위기와 곤경에 처했을 때 노동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하고, 아니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짊어져야 할 사람이다.

<3분 古典>

○ 책소개

- 저 자 : 박재희(Rota Romana 변호사, 서강대 법전대 겸임교수)
- 학 력 :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박사
- 경 력 : EBS-TV 고전특강, KBS-TV 아침마당 특강, **KBS-라디오 시사고전(520회)**, 네이버 오디오클립 아침을 여는 ‘**고전의 대문**’ 강연
- 출 판 : 작은씨앗, 2010. 11. 3. 초판 1쇄 / 2013. 6. 17. 초판 1쇄
- 주요내용
도덕경, 장자, 맹자, 손자병법 등에 나오는 고사성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강연, 강연 자료를 기초로 ‘3분 고전(내 인생을 바꾸는 모멘텀)’과 ‘3분 고전2(나를 돌아보는 모멘텀)’을 출간

○ 좋은 글귀

- 포정해우(庖丁解牛) - 장자
- 출기불의(出其不意) “出其不意 功其無備 兵者貴速” - 손자병법
- 독립불구(獨立不懼) “大過之時 大矣哉, 獨立不懼 遯世无悶” - 주역
- 영웅선읍(英雄善泣) “好哭場 可以哭矣 英雄善泣 美人多淚” - 열하일기
- 약팽소선(若烹小鮮) “治大國 若烹小鮮” - 도덕경
- 전승불복(戰勝不復) “戰勝不復 應形於無窮- 손자병법
- 정와불가어해(井蛙不可以語海) - 장자
- 애마지도(愛馬之道) - 장자
- 풍림화산(風林火山) “其疾如風 其徐如林 侵掠如火 不動如山” - 손자병법
- 권권복응(拳拳服膺) “擇乎中庸 得一善則 拳拳服膺 弗失之矣”- 중용
- 거이사명(居易俟命) “君子 居易俟命 , 小人 行險僥倖” - 중용
- 의금상경(衣錦尚絅) - 중용
- 낙이불음(樂而不淫) “樂而不淫 哀以不傷” - 논어
- 익불석숙(弋不矰宿) “釣而不網 弋不矰宿”- 논어
- 택선고집(擇善固執) - 중용
- 배중사영(杯中蛇影) “疑心生暗鬼 杯中蛇影”- 진서
- 다언삭궁(多言數窮) “多言數窮 不如守中” - 도덕경
- 선승구전(先勝求戰) “勝兵 先勝而後求戰- 손자병법
- 오미구상(五味口爽)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 五味令人口爽 難得之貨令人行妨”- 도덕경
- 천장지구(天長地久) “天長地久 其不自生 故能長生” - 도덕경